한국어

幸

Saiwai

天心大霊神
(텐신오미카미)

텐신오미카미란 거룩하고 존귀하며 천지일체를 다스리는 유일한 구원의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펼치시며 신성하고 신비한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우며 신비한 힘을 발현하시어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하느님께 바치는 이름입니다.

본부성당성전
(왼쪽·영전, 오른쪽·신전)

—안심하고 생활하는 행복을—

"왜 저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까?"

"왜 저 사람은 저리도 성실히 일하고 인품도 나무랄 데 없는데 불행한 일만 생길까?"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의문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天心聖教(텐신세이쿄)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으며 우리들 인간이 "행복한 사람" 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행복한 사람" 이 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는 텐신세이쿄가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느님에 의해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본 자료를 읽어 보시고 꼭 한번 텐신세이쿄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자애롭게 맞아 주시어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역시 불안해 .....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나 텐신세이쿄를 잘 모르시는 분은 여러 의문과 불안감이 드실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본교의 교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교사와 면담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음 장부터는 하느님과 텐신세이쿄에 대한 소박한 질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하느님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니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아도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시나요?”

당신이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하느님은 당신에게 있어 가장 알기 쉬운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곤란한 일이 해결되거나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거나 조상의 꿈을 꾸는 등 체험은 각기 다릅니다.

다만 모든 체험에 있어 공통되는 점은 하느님에 의한 구원은 옛날이야기처럼 신비롭고 놀라움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결과로서, 시간이 지나도 그 결과의 선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체험이 과학이나 철학, 지식으로 해명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한 일로,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망이라도 기도해도 되나요?”

사람이 신앙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성취하기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께는 갓난아기처럼 빌라” 고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라도 꾸밈없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뜻에 비추시어 정당한 소망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텐신세이쿄의 교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조언을 드리고 당신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텐신세이쿄의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으로 천지일체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텐신오미카미사마” 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약 2 천년 후인 1892 년 (메이지 25 년) 에 본교의 개조인 형•헤이키치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후에, 예수를 인류에게 보낸 하느님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본교의 기원은 10 쪽을 참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계, 조상들이 계시는 영계, 하느님이 계시는 신계, 나아가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나요?”

하느님과 인류의 접점이 있어, 텐신세이쿄의 개조 시마다 세이치 선생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 중 “고신지 (御神示 : 하느님의 계시)” 로 남아 있는 내용은 신계, 영계, 현계에 대한 것, 또한 우주의 섭리, 과학의 진보, 인류의 미래, 인간으로서 바른 삶까지 모든 영역에 이릅니다.

이 계시에 더하여 개조의 가르침을 담은 “설유 (御諭し)” 와 “하느님의 말씀 (神の聖旨)” 이 본교의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 신도들은 이를 교서로써 신앙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나쁜 운을 가져가시고 좋은 운을 내려 주십니다. 이로써 불운에 의해 일어나고 마는 사고, 천재지변, 싸움, 병, 가난 등에서 벗어나 당신의 운명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지켜 주시므로 커다란 안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천재지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이러한 보호는 그 어떤 것 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행복을 하느님께 기도해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조상님의 행복을 하느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리하여 영계의 조상님과 현계의 당신이 같은 하느님을 신앙하고, 언제나 서로의 행복을 기도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됩니다.

텐신세이쿄 의 기원

하느님과 10 살의 소년

텐신세이쿄의 기원은 1892 년 (메이지 25 년) 사이타마현 가조시 오고에에 살고 있던 시마다 헤이키치라는 10 살 소년 앞에 하느님이 갑자기 나타나 그로부터 4 년의 세월 동안 여러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 시작입니다.

개조 탄생의 예언

1895 년 정월. 헤이키치는 이듬해 남동생이 태어난다고 예언하여, 그로부터 13 개월 후인 1896 년 2 월 11 일에 예언대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세이치' 라는 이름을 주시고, 헤이키치에게

너와 헤어져야 하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의 사명을 내릴 자를 보낼 것이니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신계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과 하늘을 날아 심산 등을 감

하느님께 글을 배움

하느님과 헤이키치가 지냈던 헛간 (사이타마현 가조시 오고에)

40 년 후 다시

그로부터 약 40 년의 세월이 흐르고, 하느님께서는 당시 도쿄에서 장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세이치 앞에 강림하시어

너희들에게 재화와 보물을 내릴 것이니 세이치가 태어난 2 월 11 일에는 반드시 성제를 행하라

라고 명하시며, 선물 상장의 계시로 인해 세이치와 그 동료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 주셨습니다.

개교,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기적

세이치는 이를 계기로 신앙의 길에 들어서 1951 년 (쇼와 26 년),

세이치 네 신명을 다해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세계 인류를 구원하라 내가 늘 수호할 것이니

라는 신명을 받들어 텐신세이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며 현재에도 그 구원은 더욱 현저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인형극 유래' DVD

자택 2 층에서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성제를 시작함

산막에서 거한 (하느님) 을 만남

악연 제멸을 기원하며 하느님을 일심으로 섬기다

이바라키현 거주 **가와시마 후츄지** (60 대)

◎이혼, 재혼, 다툼, 빚 자신의 악인연을 깨닫고 입회

저는 이바라키지부 대만신성회 지구장 가와시마후츄지입니다.

저는 2014 년 11 월 전도사 미야우치 유코씨로부터 텐신오미카미님의 말씀을 듣고 이모와 본부성당에 처음 참배했습니다.

그때 성당 선생님께서 "사람에게는 악인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조상과 전생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는 것이 텐신오미카미님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나도 그 악인연을 떼어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해 그날 입회했습니다.

저는 20 살에 결혼해서 1 남 2 녀를 얻었습니다. 그 후 점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의 빚과 폭력, 남편과 저의 친족 간 다툼에 고민하다가 '이대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했습니다.

당초에 세 아이들은 전 남편과 살다가 남편의 재혼 상대인 계모의 처사에 견딜 수 없어 저에게 도망쳤고, 이후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윽고 아이도 성장했고 저는 일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를 돕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후 친구와 둘이서 중국집을 운영했고 그 때 현재 남편과 알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남편의 회사에 많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평하면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고 저는 도망쳐서 경찰에게 보호받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신과에도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도 전남편 모두 돈과 다툼으로 고민해야 하는 자신에게 운명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교에 입회하여 대만에서 제적등본을 들여와 공양 장부를 정돈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악인연 제멸을 위해 하느님께 일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생활비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남편 회사 빚도 줄어들기 시작해 가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널 죽일거야" 라고 소리치는 남편

그 후, 저의 악인연을 상기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 월 17 일, 한밤중에 지금까지 평온했던 남편이 갑자기 나를 향해 "너를 죽여버리겠다" 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남편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친할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할아버지의 죄·부덕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로 데릴사위를 들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으로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공양 장부 (御霊台帳:공양을 올릴 조상을 위해 제출하는 이름·명일 (命日)·계명 (戒名) 등을 기재한 장부)

그때의 조건으로 '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 한 명을 외갓집 후사로 삼겠다 ' 고 친할 아버지가 외할머니와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결혼했고 이윽고 쌍둥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둘 다 귀여워하였고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외할머니는 노여워하며 자신의 조상을 향해 " 우리 집안은 대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집이 끊어진 것처럼 사위의 집도 대가 끊어지라 " 고 향을 피우며 저주하듯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석 달 사이에 쌍둥이 형제는 별다른 원인 없이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남편이 오랜만에 한 폭언에서 이 일을 떠올리며 즉시 할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사죄하고 할아버지가 영계에서 행복하도록 빌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6 월 27 일 어머니 기일에 본부성당에서 특별기도를 통해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틀 후 꿈을 꿨어요.

그곳은 하느님의 재판소였습니다. 저에 대한 하느님의 판결은 ' 이혼으로 인한 죄 ' 였습니다. 이유는 ' 내가 이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기 때문 '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저에게 ' 일심으로 하느님을 섬긴다면 죄는 용서받는다 '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예전에 성당에서 선생님으로부터 " 두 번째 결혼생활이 힘들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힘들어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정진하면 악인연은 제멸되고 기쁨의 인생으로 인도된다 " 고 지도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부덕과 함께 저의 깊은 악인연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대만지부의 설립을 목표로

지금 저는 많은 고민과 불안에 떨던 날들로부터 안심 속에서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고령이기 때문에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제가 사장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구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대만인 이모 이케다케리와 함께 지금까지 약 20 명의 대만인을 본교로 전도하여 지난해 ' 이바라키지부 대만신성회 ' 를 발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만과의 왕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느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도록 포교 전도를 많이 하고 대만에 본교 신도를 많이 늘려 대만 지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신앙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였던 손녀가 입회 3 일후 등교

오사카부 거주 **고타니 에이코** (80 대)

제 손녀딸은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하고 충격을 받아 심적 상태가 불안정해져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급기야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약 2 년간 계속되어 남동생에게 상담을 하니 남동생이 "이번에 우리 집에서 하느님을 모시는 모임이 있으니 거기서 함께 기도해 보자" 라며 모임에 초대받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남동생은 "하느님, 누나의 손녀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2~3 일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 년간 가족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던 손녀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 가족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입회전부터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에 놀라 바로 입회를 하고 난 2~3 일후 또다른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혼자 학교에 갈래" 라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지난 2 년간의 상태로 보아 이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뇌종양이 코로 튀어나와 완치

오사카부 거주 **다니구치 사토루** (80 대)

회사 건강진단으로 왼쪽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학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으니, 의사로부터 "이전부터 있던 폐암이 전이되어 눈 안쪽 시신경 주변까지 끌어들이는 형태로 종양이 생겼습니다. 매우 어려운 수술이니 실명을 각오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다른 종교에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본 조카가 "제가 믿는 하느님께 귀의하면 분명 나을 거예요!" 라고 열심히 얘기해 주어 아내와 함께 오사카 교회에서 입회하였습니다.

저는 재검사를 받기 전에 본부성당에서 참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칸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세면대에서 코로 길이 10 센티 정도의 고름 같은 것이 몇 번인가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재입원하기 이틀 전에도 오사카 교회에서 참배하던 중 또 코에서 걸쭉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 후 재입원하여 검사 수술을 받았을 때, 분명 종양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단순한 염증이라며 외과의사도 놀라며 겸연쩍은 듯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고 놀랍게도 폐암까지 사라져, 그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도인 채로 입회하여 크게 운이 트이다

도쿄도 거주 **나카지마 이쿠코** (60 대)

저는 기독교도인 채로 입회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어 여러 문제에 고민하면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라는 막연한 기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내에 큰 문제가 생기자 '지금의 신앙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고 결국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을 멀리할 수 없었던 저는 친구인 나카가와 히데코 씨가 "나도 하느님을 신앙하고 있어." 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 연락을 해서 성당에 데려가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본교에 입회하니,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조르는 것처럼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라는 지도를 받고 마음이 단숨에 가벼워졌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던 할머니, 오빠, 그리고 생후 5 일 만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공양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뻐 마음껏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마치 허물을 벗은 듯 우리 가정의 여러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신 모두 균형이 무너지고 말았던 딸이 간호사로 재취직했고, 미국에 부임 중이던 남편은 인터넷 화상 전화로 '모임' 을 개최하던 중에 그토록 바라던 일본으로의 귀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의 부모와의 오랜 갈등이 하루아침에 풀리게 되어,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입회전에는 반신반의하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체험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을 담은 공양으로 아들의 자살 충동이 사라지다

나가사키현 거주 **스즈키 미스미** (60 대)

◎ "죽게 내버려 둬."라고 부탁하는 아들

제 아들은 희망했던 대학교에 의기양양하게 입학하여 2 학년 때까지는 순조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유년을 거듭하여, 입학한 지 8 년후 중퇴할 때에는 이미 26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가족과 대화하는 일도 적었고, 그 상태로 금세 2 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컴퓨터 전문학교에 다니면서 자격도 취득하고 그 전문학교의 교사로 취직한 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상처투성이로 돌아와서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날 죽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정신과에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고, 잠시만 눈을 떼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지켜보는 생활이 9 년간 이어지던 어느 날, 친구인 도요후쿠씨의 "하느님이 도와 주실 텐데"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하니 도요후쿠씨는 바로 달려와 주어, 둘째 아들과 같이 나가사키 임시교회 (현 나가사키 성당) 에 가서 그 자리에서 입회 절차를 밟고, 하느님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동안, 그제야 아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저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공양 장부를 제출하고 조상들의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발산 수행 (심신의 건강을 위해 하는 수행) 을, 저는 아침 기도와 오코모리 (お籠り : 매월 11 일 심야 2 시 (12 일 새벽 2 시) 기도) 를 계속하며 "부디 도와 주소서." 라고 하느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뵙다

입회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축사를 올리고 있던 중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당 같은 건물 안의 정면에 하느님이 서 계셨는데, 오른쪽 어깨를 조금 들고 영혼들을 감싸 안 듯 양손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키가 크고 두꺼운 삼베옷을 입으셨으며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길어, 저는 보는 순간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기모노를 입은 모습으로 좌우로 나뉘어 줄지어 앉아있어, 남편과 제 조상들임에 틀림없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니 "조상들이 신앙의 길에 들었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욱더 공양을 열심히 올려야겠다고 다짐하고, 마음에 걸리는 조상들의 공양을 시작했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아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고 먼저 아침 인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운전과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등 놀라운 일 뿐이어서 가족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아들의 취직도 결정되었고,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열심히 신앙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인연을 맺게 되기까지 19 년간은 하루하루가 길고 공포심과의 싸움이었는데, 구원받은 지금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말기 피부암이 완치되고 35 년 주택대출도 보험금으로 완제!

군마현 거주 **오가타 유지** (40 대)

◎내 집 완성 직후의 암 선고

입회 1 년후,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지을 토지를 찾고 있었을 때, 몸의 이상을 느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배에 있던 큰 점에 종기가 생겨 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 "단순한 점" 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맘에 드는 토지를 찾아 순조롭게 내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던 그 때 왼쪽 배의 점이 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점이 이렇게 커질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이번에는 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점을 전부 절개하고 재검사를 받은 결과, 병명은 '멜라노마' 라는 피부암의 일종이었습니다. 전이되기 쉽고 진행이 빨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악성 암입니다. 즉시 다른 병원에서 이차소견을 받아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게다가 암은 표피로부터 6 밀리 깊이까지 침식하고 있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바로 성당에서 참배하고 지도를 받으니 선생님께서는 "숙명은 바꿀 수 없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도해 주시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술 성공과 보험금 배당

수술은 피부이식이 필요한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몇 일 후, 이번에는 왼쪽 겨드랑이의 림프에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지만, 이 전이는 유전자 레벨의 아주 작은 수준에 그쳐,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수술후의 항암제 치료에 의한 부작용 증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주택대출을 받은 보험회사의 직원이 우리 집에 찾아

왔습니다. 건물 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에 들기 전부터 암이었다' 는 의심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일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 35 년의 주택대출을 암보험금으로 완제

하지만 몇 일 후, 놀랍게도 보험 적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의 진단이 '단순한 점' 이었던 것이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으로, 35 년간 지불해야하는 건물의 주택대출을 1 년간 지불한 것으로 완제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수호를 받아 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의사의 "이제부터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1 회의 검사와 3 개월에 한번씩 문진만 하러 오세요." 라는 말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일도 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느님의 힘으로 인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실업하고 처음으로 성당에 참배 후 큰 행운을 얻다

도쿄도 거주 **마루야마 노리모토** (40 대)

저는 내부 설비 업자입니다만, 근무하던 회사가 불경기의 영향으로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것은 아내뿐이었고, 그때까지 저는 손 모아 기도한 적도 없었는데, 어쩔 도리 없이 퇴직을 당하고 독립할 가망도 없어 궁지에 몰린 저는 처음으로 성당에 참배하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였지만, 하느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니 내부 설비업을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와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꼭 도와주었으면 한다" 는 말을 듣고, 그 후로 순조롭게 일이 들어와 처음으로 하느님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즉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기에 리더로 발탁되어 고수입을 올려 곤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함께 감사의 참배를 드린 후에는 후원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형 담배 제조 회사의 전국의 새 점포를 위한 내부 설비를 의뢰 받고, 그에 더해 대형 의류 회사가 뉴욕에 새로 점포를 내면서 회사 사상 가장 큰 점포의 내부 설비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일거리가 날아든 것입니다.

이것이 업계에서 소문이 나 연이어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사무소도 차리고 대형 건설회사와의 사업 제휴라는 행운을 얻어 안정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궁지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큰 행복의 길을 주신 위대한 하느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신앙에 눈떠 구원받은 남편의 생명

도쿄도 거주 **구니타테 레이코** (60 대)

방콕에 단신으로 체재하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긴급 입원했다." 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리 신실한 신자는 아니었는데 그 통화에서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 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담관 결석이 원인인 급성 췌장염과 급성 간염으로, 췌장의 염증은 왼쪽 폐에까지 번져 흉수가 차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로부터 "이 정도로 간 수치가 높은데 황달이 들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는 말을 듣고 하느님께 일심으로 기도하며, 철저한 감염증 조치를 받아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주치의에게 가니 "췌장 상태가 꽤 심각하고 췌액이 새어 낭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로 다행히도 죽지 않고 귀국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개받은 대학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니 "췌장의 췌관이 중간에 끊어져서 췌액이 새고 있습니다. 낭종이 세균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고열이 나면 긴급 입원하십시오." 라는 말과, 그에 더해 "낭종이 없어질 때까지 반년에서 1 년은 걸립니다.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금 위대한 하느님께 신실히 기도하도록 얘기하여 남편은 성당에 참배하고 선생님을 통해 하느님께 병이 완쾌되기를 일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러자 참배하며 지내는 동안 병세가 호전되어 2 개월 후에는 낭도 작아지고 감염증도 없이 입원하지 않고 단기간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느님의 힘과 자애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하고 말기암이 치료되다

홋카이도 거주 **안도 게이코** (60 대)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까운 병원에 가니, 의사로부터 "담관암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개월에서 반년 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고, 저는 갑작스러운 사망선고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었으므로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암은 간의 위아래•림프•문정맥•혈관에도 전이되어 "수술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4 기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 사촌인 와타나베 미호코씨로부터 하느님의 존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회하였습니다. 입원중이었기 때문에 성당의 선생님께는 전화로 지도를 받았는데, "병원을 바꾸세요." 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긴 병원에서는 우수한 의사의 집도로 인해 이전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 침대 위에서 축사를 올리고 하느님께 일심으로 수호를 기도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병세에서는 '수술을 해도 빠르면 1 개월만에 재발한다' 는 말을 들었지만, 재발도 전이도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후에 다른 암이 갑상선에서 발견되었지만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어 갑상선 좌엽과 우엽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에는 전이도 재발도 없이 건강할 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숙명일지라도 큰 재난을 작은 재난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립니다.

본교의 신앙에는

신비한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헤이키치 소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1892 년 (메이지 25 년) 부터 오늘날까지 하느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체험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병, 일, 가정, 그 외,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 하느님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행복한 매일을 보내기 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개조 시마다 세이치 선생님 [1896 년 (메이지 29 년)-1985 년 (쇼와 60 년)] 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세이치 네 신명을 다해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세계 인류를 구원하라 내가 늘 수호할 것이니』 라는 사명을 받들어 텐신세이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가에서 종교가로 전신하셨습니다. 1951 년 (쇼와 26 년) 에 본교가 개교한 이래, 89 세로 서거하실 때까지 인류 구원의 길을 완수하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하사 받은 계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우주의 진리에 근거한 가르침과 훈화가 본교 교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행복을 받기 위한 "개인지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바른 신앙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행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상담에 오신 분들에게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 적절한 조언을 하고,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본교에 입회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경제적 문제•가정의 문제 등, 어떠한 것이라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오십시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소개인 또는 전국의 성당•교회에 언제라도 문의 바랍니다. (전국 예배시설의 장소•연락처는 마지막 장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관일은 통상 1 일, 11 일, 21 일을 제외한 목요일입니다)

입회에 대하여

Q. 입회하지 않아도 지도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미입회자 분은 기도료가 필요 없습니다. 소개인과 함께 오시거나 또는 소개인의 이름을 접수처에 말씀해 주십시오. 소개인이 없는 분은 본부성당, 각지 성당 또는 교회에 상담 바랍니다.

Q. 입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개인과 함께 본부성당, 각지 성당 또는 교회에 참배 후 입회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당년도 연회비와 집에 두는 부적의 대금 11,000 엔을 납부한 후 집에 두는 부적을 받으면 입회가 완료됩니다. 또 입회시에 교서와 신앙의 길잡이, 축사 책자 등을 드립니다.

Q. 연간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연회비 5 천엔 (일반회원)
○집에 두는 부적 6 천엔　오마모리 천엔　교통오마모리 6 천엔
○합동 공양제 공양료 6 천엔 (1 년분)
○일반 공양 2 천엔 (인원수가 아닌 1 회 공양료입니다)
○지도기도료 수의 (금액은 임의)

Q. 다른 종교에 있어도 입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믿는 대상은 달라도, 그 신앙심이 머지않아 텐신오미카미님께 이어져 이제까지의 신앙도 살아 이어질 것입니다.

문의처 텐신세이쿄 본부성당 03-3946-1721

텐신세이쿄 각지 예배시설 안내

본부성당 (도쿄)
(우)113-0021 도쿄도 분쿄구 혼코마고메 6-10-21
Tel 03-3946-1721 Fax 03-3944-5040
http://www.tenshin-seikyo.or.jp
E-mail : ho@tenshin-seikyo.or.jp

텐신세이쿄 홈페이지
이차원 코드

나가사키 성당
(우) 852-8144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메노토 3-5-16
Tel 095-840-0400
Fax 095-844-7747

오사카 교회
(우) 545-0013 오사카부 오사카시
아베노구 나가이케쵸 10-6
Tel 06-6628-4855
Fax 06-6628-4866

성지 오고에 예배당
(우) 347-0001 사이타마현 가조시
오고에 2439
Tel・Fax 0480-68-6148
(관리사무소)

하코다테 예배당
(우) 041-0835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히가시야마 1-15-1
Tel 0138-83-8381
Fax 0138-83-8382

야마가타 예배당
(우) 994-0016 야마가타현 덴도시
히가시쿠노모토 3-3-38
Tel・Fax 023-654-8540

시코쿠 예배당
(우) 769-2606 가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미즈시 2067-31
Tel・Fax 0879-23-0073

오이타 예배당
(우) 870-0101 오이타현 오이타시
나카쓰루사키 2-6-19
Tel・Fax 097-527-3319

누마즈 교회
(우) 410-0822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시모카누키 하야시노시타 2068
Tel 055-932-7999
Fax 055-934-1060

이사하야 교회
(우) 854-0001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
후쿠다마치 46-32
Tel 0957-22-2227
Fax 0957-24-0914

삿포로 예배당
(우) 061-1103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
니지가오카 8-2-1
Tel・Fax 011-375-9212

센다이 예배당
(우) 989-3122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구리유 6-2-1
Tel 022-391-8944
Fax 022-392-7435

이세 예배당
(우) 511-0264 미에현 이나베시
다이안쵸 이시구레히가시 1860-5
Tel 0594-78-1356
Fax 0594-78-1920

이마바리 예배당
(우) 799-1522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사쿠라이 2-6-4
Tel 0898-52-7897
Fax 0898-52-7898

텐신진료소 (도쿄)	(우)113-0021 도쿄도 분쿄구 혼코마고메 6-11-9 예약・문의 **03-3944-5086**
이사하야 텐신진료소	(우)854-0001 나가사키현 이사하야시 후쿠다마치 46-32 문의 **0957-22-5535**

텐신세이쿄의 기원으로부터 개교에 이르기까지

"유래" 1 권

(182×128㎜) 310쪽

미입회자 분께 드립니다.

"유래" (1 권)을 읽고 싶으신 분은 전화・메일로
신청해 주십시오.
미입회자 한 분께 한 권을 보내 드립니다.
(배송비 무료)

헤이키치 소년이 하느님과 지낸 헛간
(사이타마현 가조시 오고에)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天心聖教(텐신세이쿄) 본부성당 전화 03-3946-1721
E-mail : ho@tenshin-seikyo.or.jp